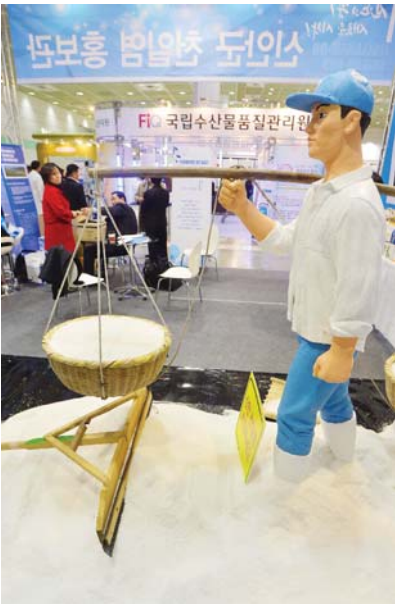


천일염 품질인증, 우수천일염으로 통합



제작과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천일염 품질인증도가 일원화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기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

수산물품질관리원, 내일부터 일원화 시행 “세계적 명품소금 생산 활성화에 노력”

을 통합하고 인증기준을 개선한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2014년 7월 고시 제정 이후 ▲우수 천일염 인증 ▲생산방식인증 천일염 ▲친환경 천일염 3종으로 구분·운영돼 왔다. 하지만 인증제별 상이한 기준으로 2019년 5월 기준 우수천일염 1개소, 생산방식인증천일염 4개소 등록하는 등 생산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또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12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이 '우수 천일염 인증' 1종으로 통합됐다. 이번 고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생산자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인증제의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질기준은 강화했다. 천일염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분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했다.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하고, 그 외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 함량기준도 조정했다. 또 염전과 주변 환경과의 거리를 국내 천일염 생산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염전 인근의

공장, 축사 등과의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200m)을 유지하고, 염전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과 도로 등의 거리기준은 폐지했다.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천일염 생산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천일염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리나라의 우수 천일염은 프랑스 계란도 소금과 같은 세계적인 소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품질기준이 적용된다"며 "정부는 강화된 품질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우리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푸르밀, 농심과 손잡고 '인디안밥 우유' 출시

푸르밀이 농심과 손잡고 '인디안밥 우유'를 출시했다. '인디안밥 우유'는 인디안밥 맛을 살린 가공우유로 최근 식품업계의 뉴트로(New-tro, 새로운과 복고의 결합) 트렌드에 맞춰 개발한 제품이다. 인디안밥은 1973년 출시된 농심의 스테디셀러다. 푸르밀은 인디안밥을 우유에 재해석해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를 느끼도록 했다. 40~50대 연령대 소비자에게 추억을 일깨울 수 있도록 인디안밥 캐릭터를 패키지에 담았다. 제품 용량은 넉넉한 300ml로 출시됐다. 인디안밥 우유는 편의점 세븐 일레븐, CU, 이마트24 등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1500원이다. 푸르밀 관계자는 "인디안밥 우유는 바나나 우유에 이어 농심 브랜드와 지속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출시된 신제품"이라며 "업계의 뉴트로 트렌드와 곡물 우유 트렌드를 모두 반영하여 재미와 맛을 동시에 챙겼다"고 말했다.



'쁘띠 몽셀' 출시 5개월 만에 4000만개 팔려

롯데제과가 지난 1월에 출시한 '쁘띠 몽셀 생크림케이크'가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4000만개를 돌파했다. 누적 매출은 60억원을 올렸다. 이는 최근 출시된 미니 파이 신제품 중 가장 좋은 판매 추세를 보여, 먹기 적당한 크기와 생크림 함량을 높여 풍부한 맛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롯데제과는 설명했다. '쁘띠 몽셀'은 '쁘띠몽셀 크림'과 '쁘띠몽셀 카카오' 2종으로 출시됐다. 기존 몽셀에 바닐라와 헤이즐넛 커피잼을 각각 새소재를 첨가해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게 특징이다. 롯데제과는 최근 불고 있는 미니 사이즈 파이 열풍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쁘띠 몽셀'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스

8월 공개 유력 '갤노트10' 어떤 모습일까...S펜 기능은 베일 속

삼성전자의 새로운 갤럭시노트 시리즈가 오는 8월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제품의 스펙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였던 S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신제품 정보 유출로 유명한 스티브 헨머스터퍼(Steve Hemmerstorffer)는 트위터 계정 온

델에 적용해 사용자에게 폴 스크린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렌더링 이미지에서는 중앙 상단의 카메라 홀을 제외한 전면을 디스플레이로 채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노트10 프로를 4G, 5G 모델 각 2종씩 총 4종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갤럭시S10 5G에 이어 두 번째 5G 모델이 되는 셈이다.



갤럭시노트10프로와 갤럭시노트10의 렌더링 이미지.

반 모델에는 4300mAh, 갤럭시노트10 프로 모델에는 4500mAh 용량이 내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5W(와트) 급속 충전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855와 삼성전자 엑시노스9820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대 12GB 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노트10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S펜의 신기능에 대한 정보나 관측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9은 S펜에 블루투스 기

능을 적용, S펜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한편, 갤럭시노트10 시리즈는 8월 중 공개가 유력하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통상 8월 공개된 이후 8월 말 혹은 9월 초에 출시됐다. 업계는 출시가 잠정 연기된 갤럭시폴드가 6~7월 중 출시되면, 갤럭시노트10 시리즈의 공개 시기는 미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스

일반모델과 프로모델 4G·5G 각 2종으로 선보일듯 폴스크린 적용·프로모델에는 쿼드 카메라 탑재할 듯 두번째 5G 모델...새로운 S펜 기능은 여전히 베일 속

리크스(OnLeaks)를 통해 갤럭시노트10프로와 갤럭시노트10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 프로에는 ToF(비행시간 거리측정) 카메라가 포함된 쿼드(4개) 카메라가, 갤럭시노트10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장착될 전망이다. 또한, 갤럭시S10에 적용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모든 모

델 갤럭시노트10 시리즈의 화면 크기는 일반 모델이 6.3인치, 프로 모델이 6.75인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모델은 최근의 스마트폰 트렌드처럼 헤드폰 잭이 사라지고 빅스비 버튼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디스플레이에는 초음파식 지문 스캐너가 내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노트10 일

농심, 신라면 모델로 손흥민 발탁

농심이 손흥민 선수를 신라면 모델로 기용했다. 라면업계에서 손흥민 선수가 모델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심은 신라면과 손흥민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라는 공통점에 주목했다.



농심 관계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세계 100여개 국가에 한국의 매운맛을 전파하는 신라면의 글로벌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진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는 새 광고에서 농심은 한국의 대표 매운맛을 상징하는 신라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계획이다. 새 광고는 이달 중 제작에 들어가 조만간 전파를 탈 예정이다. 신라면 모델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거쳐갔다. 1986년 출시때부터 탤런트 강부자, 최수종, 송강호, 하정우 등이 모델로 발탁됐다. 축구선수 박지성과 차두리, 배드민턴 이용대, 유도 최민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델로 활약한 바 있다.



지역광판·미세장소·정문리플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